

지리산담 건설 백지화 범불교연대 29일 창립

생태·문화적 가치 대사회 홍보등 추진

'지리산담 건설계획은 낙동강에 대한 포기이며,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사회적, 문화적, 민족통합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이다'

지리산담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교계의 반대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출·재가 단체로 구성된 '지리산담 범불교대책위'가 29일 출범하는 것을 비롯하여, 담건설 예정지인 남원 함양 산청 지역에서도 20일 3개교 불교연대가 창립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와 전국교의 본·말사주지들도 지리산담 건설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지리산담 백지화 추진 범불교대책준비위(위원장 수경스님)는 14일 한미음선원 봉은사 해인사 능인선원 등 주요 사찰과 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청년회 경원선 불교환경교육원 등 30여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회의를 갖고 29일 오후 3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

관에서 범불교대책위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여법한 대책위 구성을 토대로 불교단체간 활동뿐 아니라 대 사회적 연대활동도 다양하게 펼쳐지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범불교연대 정관 및 기구, 사업계획안을 2차 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준비위는 또 15일 지리산담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소식지 1만부를 발간, 전국사찰 및 주요기관, 지리산 일대 지역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리산 살리기 담건설 백지화 3개교 불교연대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성후)도 14일 1차 준비회의를 갖고, 20일 오후 7시30분 함양을 위성초교에서 지리산담 백지화 합양·산청·남원 불교연대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또 지리산 일대 3개교 54개 사찰에 지리산담 건설반대 현수막을 걸기로 결의했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출범식에서는 '생명살림과 지리산'을 주제로 한 성수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의 법문과 지리산담 건설반대 규탄, 결의문 채택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에서는 13일 불교계의 지리산담 건설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교구본사 주지들은 결의서에서 "법을 건설하여 영남지역 식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낙동강과 지리산을 동시에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리산담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은 8월말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론보고서는 12월말 발표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조계종연대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수행지리를 떨치고 일어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던 진공당 탄성대중사 영결식이 12일 법주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미혹한 중생 이끌어 주소서"

탄성스님 영결다비식...1만여 대중 애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 대중사의 영결식이 12일 법주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다.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창훈과 행장소개, 육성법문 정취, 영결사와 법어, 조사, 헌화 및 헌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조계종 총정혜암스님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인간의 안목이시던 소요객이 종단불사로 일도 많으셨다. 그러나 우리 가풍은 본래 일이 없건단 불이 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

도"고 말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사바에 다시 오셔서 미혹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이 계셨기에 종단이 수행과 교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놓치지 않고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종회의장 범담스님, 이인재 민주당 상임고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송석구 동국대총장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다비의식이 거행됐다.

한편 장의위원회는 13일 "스님의 유골에서 상당량의 사리가 나왔으나 덕숭문종의 가풍상 사리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탄성스님의 유골은 공림사로 옮겨져 안치됐다. 탄성스님 1재는 14일 공림사에 봉행됐으며, 2~7재는 법주사에서 봉행한다. 정성운 기자

남북공동선언문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경제협력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은

동국대 혜불 진상조사단 구성

조계종 종립학교위, 이사·감사 후보 추천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6차 회의 열고 동국대 혜불진상조사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동국대 설립의 회장 도은스님으로부터 혜불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립학교 발전 연구소위원회와 종립학교 관리위원장 간사 등 7인조 조사단을 구성, 혜불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송재운 법인사무처장의 자료 제출 거부 발언을 진상조사 후 책임자 문책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동국학원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선정한 후 중

양총회에 추천동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사 후보에 영배스님(중앙총회 사무처장)과 종립스님(종회의원), 감사 후보에 항적스님(종회의원) 무관스님(계단위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 지홍스님(조계사 주지)을 각각 선정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동국학원에 재무제표, 교직원 종교현황 등의 자료를 23일까지 제출토록 재촉하기로 하고, 자료제출거부시 종법에 따른 의법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위원장에 학담스님, 부위원장에 정남스님, 간사에 정안스님을 선임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별도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는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종립학교관리위는 종헌·종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철저히 행해 동국대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혜불이후 동국대 내홍 교직원 종교공개 등 학교측·석림회 신경전

성상 혜불 사건으로 시작한 동국대 내홍은 학교 당국의 '석림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진전국면으로 들어섰지만, '교직원 종교성 공개 및 인사 반영'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석림회에 전달된 답변서에 따르면, 동국대는 △불교대학·대학원 명칭인 이전 △수계자에 한해 보직 임명 △교직원 신행 평가 강화 △불교대학 특별전형 확대 및 전과 불허 △혜불 사건 자료 정리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학칙에 건학이념 수호조항 삽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석림회는 "종교 보직 인사들의 종교성 공개와 인사 반영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해 유감이다"며 "두 가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원 종교성 공개'와 '인사 반영'은 여전히 감정의 골로 남게 됐다. 오종욱 기자

"포교매체다운 프로그램 강화"

불교방송 김규철사장

四肢"라디오 포교 매체로서 특화된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면 뉴미디어 경쟁시대에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재임기간동안 '불교방송의 위상 정립'을 화두로 전과 포교의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규철사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야심찬 새 각오를 밝혔다.

대학시절 강남 명성암에 수도원을 열고 하루에 3천배를 1주일간 했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한 김규철사장은 하반기 광고시장의 변화와 디지털 방송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건축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라디오 매체는 진행자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상태에서 출발해 단순히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적인 불교의 사상을 포교하기에는 영상 매체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체의 특성만 잘 살린다면 불교방송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68년 직지사에서 고암스님으로부터 '덕인'(德因)이란 법명을 받은 김규철사장은 대학시절부터 <수심경> <금강경> <인간경> 등 경전에 심취하기 시작했으며, 성철·경봉 스님 등 고승대덕을 찾아 산사를 순례했다고.

"의무부와 언론계 등 직장을 여러번 바꿨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대학시절 입문했던 불교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불교 포교 발전에 한몫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철 기자

'이타행 실천' 공동선언문 채택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 4백여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13일 일본의 도쿄 천초사에서 열린 제21회 한일불교문화교류 천초사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계속 발전을 마음으로 기원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뿐 아니라 민중의 융화에 '든든이행'의 불교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

기로 "참다운 상호간의 국민감정의 이해를 더해 가고,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유대 정선에 입각하여 연대 활동에 더욱 힘쓰자"고 선언했다.

12일 도쿄류호텔에서의 환영만찬 회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이날 오전 천초사 대법당에서의 평화기원법요식, 오종탑원 강당에서의 '일본의 관음신앙'(시오리리표), '한국의 관음신앙과 그 형태'(홍은식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연설과 폐회식에서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회합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발행·편집인 : 김광삼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령을 준수한다.)

논설고문 : 고은

인쇄인 : 김규석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i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현대만평 박구원

상상만 해도...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단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입장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의 발의와 전국의 많은 본사와 말사들의 재산출연에 의해 설립된 종단의 대표적 종립학교이다. 그 후 동국대학교는 약 1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교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인재를 길러냄은 물론 국내의 대학교육발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국대학교는 담보상태를 거듭하면서 학교발전이 있어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되었으며 심지어는 일부 신설 대학교에 비해서도 교육기관의 위상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이 무성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동국대 교정내의 광장에 봉안된 부처님 상상을 손상한 충격적인 혜불사건에서부터 최근 7, 8년 이내의 기간 만도 동국대 교정내(서울, 경주캠퍼스)에서 각종 혜불사건과 반불교적 폭력행위가 난무하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동국대학교는 이미 불교의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종도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한때 국내의 가장 유수한 대학 중의 하나였던 동국대학교가 건학이념도 상실하고 중하류 이하로 전락했다는 일부 대중들의 평가에 대해 항변조차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자 주인인 종단과 재단이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유지계승하면서 학교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단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지만 종단과 학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당국이 가장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은 필요할 때마다 법인의 임직원 인사자료나 종립학교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자료 요청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종단 산하의 여타 종립학교 법인 사무처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 왔으며, 심지어는 원불교나 이교도인 기독교나 천주교 산하의 법인에서조차 호의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는데 동국학원 재단만 유일하게 종단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동국학원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종단과 독립되어 있어 자료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 사무처의 답변이었다. 이는 동국학원의 탈종단화 선언에 따른 아니며 동국대를 종단과 무관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종단은 슬프게도 동국학원의 재단 업무와 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실태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동국대가 3류로 전락하고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학교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재단과 학교 측이 종단과 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한 결과이다. 그러나 종단의 발전이 동국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듯이 건학이념에 근거한 동국대의 발전이 있어야만 불교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종단은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의 심정으로 동국대학교를 진흥시키는 일을 주요과제로 삼고자 한다. 더 이상 '종교와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의 독자성을 내세워 종단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반 요구를 거부하는 법인의 임직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헌종법에 의해 종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하면서 동국대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본 위원회는 동국학원 건학이념의 충실화와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할 것이며, 동국학원에서 조계종단의 지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둘째, 본 위원회는 '소관 종립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1회 이상 중앙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종단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국학원의 재단 사무처와 학교 당국에 재정이나 인사관련 등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다.
 - 셋째, 지난 5월 23일자로 본 위원회가 재단 사무처에 '재무제표' 인사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무처의 책임자가 종단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자를 엄정 문책할 것을 재단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 넷째,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종도들을 대상으로 동국대의 발전 방안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것이다.
 - 다섯째, 본 위원회는 종립학교 진흥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할 것이다.
 - 여섯째, 본 위원회는 동국대의 재단과 학교당국이 건학이념 구현에 소홀하거나 학교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한다면 이를 시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불기 2544(2000)년 6월 15일